

 진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부속기관 : 골별유치원 857-8545 요셉어린이집 857-8546	미사 시간	주 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 19:00
			06:30 (새벽)
			10:00 (중·고등부 소성전)
		평 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시간 : 8/15(월)

미사 시간	06:30, 10:30, 19:00
-------	---------------------



8월 15일은 원죄 없으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평생 동정이신 성모마리아께서 지상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영혼과 육신이 함께 승천하심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로마 전례력의 4대 축일 중 하나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축일입니다.
(봉헌금 있습니다.)

● 알 림

- 8월 병자영성체(봉성체)와 임원 모임은 쉽니다.
- 8월부터 유아세례 및 태중의 아기 축복 일정 변경 안내
 - 유아세례 :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1시
 - 태중아기 축복 : 매월 셋째 토요일 오전 11시
 - 접수 및 문의 : 본당 사무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 모 임

단체명	일 시	장 소
위령봉사회	8/7(일), 12시	강 당
자녀를 위한기도	8/11(목), 19시 40분	1교실
1Cu	8/14(일), 12시	강 당
2Cu	8/14(일), 13시 30분	강 당
성령봉사회	매주 월요일, 19시 40분	1교실

● 청소년부

- 통합복사단 도보순례
 - 일 시 : 8월 14일(일) ~ 15일(월)
 - 장 소 : 춘천 운봉산장
 - 문 의 : 구민서 010-8193-1514

● 교 육 / 강 좌

- 예비신자 교리 신청받습니다.
 - 주일반, 평일반
 - 사무실에서 신청받습니다.

● 새로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7/1~7/31)

구 역 반	성 명	세 례 명	이전 본당
22구역 4반	조권구	리 노	대구대교구/옥계
24구역 4반	진이준	라파엘	인천교구/선학동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맛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 다음 주일(8/14)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9월 시작 예정	청 소	1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7월 27일 ~ 8월 2일)

교 무 금	8,262,000원
주일헌금	4,757,500원
시설헌금	설광옥10만원
	김천길10만원 김시아 5천원 이영숙 5만원
감사헌금	최남준10만원 김수자10만원 김숙경10만원
	정정숙10만원 송영숙 5만원

● 교종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 일	해 설	복 사	독 서
8/7	황원선	심재순 최상림	최승일 손정주
8/14	박혜선	오성환 장희석	장익근 김성해

● 성체 분배자 명단

월 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8/7	장인홍	최승일 손상민	최석준 최창열	
8/14	최영만	최창열 박형순	오광운 김광수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통합하고 모으는 사랑

190. 정치적 애덕은 모든 이를 향한 열린 마음을 통해서도 표현됩니다. 특히 통치의 책무를 맡은 이들은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희생으로 부름받았고 적어도 일부 주제들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통치권자는 기꺼이 다른 사람의 견해에 귀 기울이고 모든 이에게 각자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통치권자는 희생과 인내로, 모든 이의 자리가 있는 아름다운 다면체를 만들어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 협상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 이상의 어떤 것, 바로 공동선을 위한 은총의 교류입니다. 이는 순진한 이상향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 고귀한 목표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191. 우리는 온갖 근본주의적 불용이 개인이 개인과 집단과 민족의 관계들을 해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이웃 존중의 가치, 모든 다름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견해와 실천이 어떠한 심지어 죄를 지었어도 그보다는 모든 인간의 존엄이 우선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 주고 가르쳐 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광신주의, 달린 논리, 사회적 문화적 파편화가 증대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정치인은 다양한 목소리들이 울려 퍼질 수 있게 첫발을 내딛습니다. 불일치는 분명 갈등을 낳지만, 획일성은 우리를 숨 막히게 만들어 문화적 쇠퇴로 이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의 한 단면에 갇혀 살아가며 안주하지 맙시다.

192. 이와 관련하여 저와 아흐메드 알타예브 대이맘이 다음과 같이 당부한 것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제 정책들과 세계 경제의 입안자들에게, 관용의 문화 그리고 다 함께 평화롭게 사는 문화를 널리 퍼뜨리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또한 최대한 서둘러 무고한 피 흘림을 멈추는 …… 일에 앞장서기를 바랍니다.” 특정한 정책이 자국의 선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다른 나라들을 향한 증오와 공포를 심어 줄 때, 이를 걱정하고 제때에 이에 대응하며 곧바로 방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